

“고분자과학과 기술”紙 創刊에 즈음하여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박 원 희



새로운 世紀를 눈앞에 둔 現 時點에서 次世代 新素材技術의 中樞의 役割의 一翼을 擔當할 高分子分野의 새로운 專門 技術紙가 貴學會에서 “고분자과학과 기술”이란 題號를 가지고 創刊함에 즈음하여 祝賀의 글을 올리게 됨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貴學會의 學術紙 “폴리머”를 通하여서 매우 훌륭한 高分子 分野의 學術活動을 認知하여 왔습니다만 새로이 技術紙를 創刊하게 되어서 새로운 高分子 技術의 動向을 接할 수 있게 됨은 高分子 分野에 從事하는 科學技術人 뿐만 아니라 化學工業 및 學界에서 일하고 계신 全 化工人들도 慶賀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本人이 責任맡고 있는 化學工學會와 高分子學會는 原來 그 뿌리가 하나로 成長하다가 나무가 점점 커져서 다른 가지를 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뿌리를 가진 나무를 더욱 더 잘 자라도록 같이 努力하고 協助할 責任과 義務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化工學會에서도 產業體에 계신 여러분들의 要求에 부응하여 “화학공업과 기술”이란 技術紙를 7年前에 發刊하기 始作하여서 會員間의 情報交換 및 最近 化工技術을 產業體에 계신 化工人들에게 傳達하고 會員間의 對話의 場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貢獻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今年부터 年6회로 增刊하게끔 發展 成長 하였습니다.

公知의 사실로 昨年에 貴學會에서 機能性 高分子에 관한 IUPAC 國際 會議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여서 國際의인 名聲을 得한 바 있고 他 學會의 模範을 보인 것을 익히 記憶하고 있습니다. 특히 今番 貴學會에서 새로이 技術紙를 發刊하게 됨으로써 貴學會 會員 뿐만 아니라 本人 및 化工學會 會員 더 나아가서 關聯分野에 從事하는 他學會 會員 여러분들도 高分子에 대한 새로운 知識을 쉽게 接할 機會를 提供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어 關聯分野의 產業界 및 學界에 계신 여러분들의 보다 폭넓은 知識 形成의 場이 펼쳐지기를 衷心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큰 高分子 分野의 發展과 活潑한 學會活動이 展開되기를 바라며 이 高分子 分野의 새로운 技術紙의 出現으로 폭넓은 高分子 技術이 紹介 傳達되어서 高分子 技術 發展에 크게 貢獻하여 人類福祉에 寄與함은 물론 貴 學會 會員 여러분들의 새로운 知識과 對話의 場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새해 劈頭에 새로이 發刊되는 貴學會의 技術紙의 새로운 出帆을 慶賀하면서 貴學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